

○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정]

전북 익산고등학교 양 ○

제안사유

환경오염으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사막화가 일어나는 등 그 문제의 규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환경오염은 각 국가별이 아닌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중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는 대기오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정책이 없는 것이 실상이다. 하지만 대기오염은 해소를 의무화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나라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산림확대가 있다. 하지만 영토가 좁고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건물 내 녹색시설 건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건물 내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법

주요내용

1. 녹색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여 대기오염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며 취업률의 증가 등을 기대효과로 본다.
2. 크게 기업과 아파트, 여가시설로 나누어 규정을 달리하여 실시한다.
3. 정부 소속의 관리자를 보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5년 마다 한 번씩 환경마크를 부여하여 혜택을 준다.

조 문

제 1조(목적) 이 법은 녹색시설 설치의 의무화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말하는 녹색 시설 설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나무, 꽃 등의 공기 정화 식물로 꾸린 정원 및 텃밭 등의 시설을 총칭한다.

2. 녹색시설 설치의 의무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시설 설치의 의무화 규모는 기업과 아파트의 경우를 다르게 둔다.

② 기업의 경우 11,000㎡(330평x10층)미만의 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며, 11,000㎡이상의 건물은 옥상 전체에 설치할 것을 의무로 한다.

③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30,000㎡ 이상인 곳을 설치대상으로 하며, 건물의 연면적과 도보 및 차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모두 녹색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의 경우 녹색 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한다.

3. 녹색시설 설치 의무화의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상업적 목적이 아닌 거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도 부지면적이 230㎡이하인 시설은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조 (운영정책)

1. 실시 과정에서의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설치한 경우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부여한다,

② 설치 대상이지만 의무 규모 외에도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부여한다.

2. 녹색시설 유지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3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여 녹색 시설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5년마다 유지가 잘 된 시설을 골라 녹색마크를 부여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